

# 탁월한 령장을 높이 모시여

명장 밑에는 약물이 없고 위대한 령장의 슬화에 강군이 있다.

오늘 공화국무력은 또 한분의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어 무적의 전투대로 자랑떨치고 있다.

주제100(2011)년 12월 30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어 공화국무력의 정치사상적위력과 전투력, 무장장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오늘과 같이 공화국무력이 세계최강의 장애무력으로 강발발전될 수 있는것은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시는 모든 문제를

독창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명군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무력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무적결승의 강군으로 키우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적인 중요회의들에서 전군을 집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강군으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명시하여주시었다.

총대에 사상이 결합되면 그 위력은 백배해지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현대적인 무

기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력사가 실증해주고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7월에도 건군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를 조직하시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공화국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로서와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훈련을 강화하여야 이 땅의 평화도 지키고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할수 있다는 철리를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수호의 화신길을 앞장에서 걸으시어 자위의 역센 보검을 마련해주시었다.

인민의 운명을 지켜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를 안고서 새 무기개발현장을 찾았으신 낮과 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국방과학자들에게 새 기술창조의 열쇠도 안겨주시고 한밤이 지새도록 새 무기조립도 지도해주시었으며 새 무기시험사격을 가에서부터 보아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사생결단의 길에서 공화국의 무장력은 세계최강의 수준에 오를수 있었다.

진정 오늘날 조선의 국력은 민중자존은 공화국의 생명이고 우리 혁명의 근본조직으로 되어 굵어지고 일어죽을 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억척불변의 의지로 공화국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

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처럼 공화국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를 실현하고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키우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령도사에 애써신 빛나는 업적이다. 강군의 위용은 강군으로 담보된다.

령도자가 위대하여 강군이 있고 령도자가 위대하여 불패의 무력이 있다는것을 공화국은 지난해 1월과 9월에 진행된 심야연병식, 10월에 열린 국방발전전략회의 《자위-2021》을 통하여 세계에 현실로 증명하였다.

연병식을 본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은 《조선이 심야에 진행한 연병식은 사람들에게 세게일류군의 군대를 보여주었다.》, 《이번에 보여준 무장력은 그 누구도 감히 조신을 넘보지 못한다는것을 시위하였다.》, 《조선은 민간무력만 가지고도 능히 자기의 존호를 사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의 국방공업의 위력과 무력의 군사기술적강세를 시위한 일대 축전이었다.》고 격찬하였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남다른 긍지를 안고 새해에도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더욱 고무당당히 힘차게 나아가갈 열의를 넘쳐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 농촌진흥의 응대환을 위하여

2022년 새해가 밝아왔다.

새해를 맞이한 이 땅에 기쁨과 환희, 희열과 랄만이 한껏 넘쳐난다. 사회주의협동농 어디서나 신심과 락판에 넘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사회주의농촌진흥의 앞길을 밝힌 웅대한 설계도를 받아안으니 심장이 똬똠고 힘이 솟아올랐다. 우리는 새해에도 또다시 승리할것이다.》

《신심이 넘쳐난다. 우리 농촌이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가 금시 보이는것만 같다.》

...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현시기 농촌문제해결의 가장 과학적인 진로를 명시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받아안고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홀리간 2021년의 한해가 되겨진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인 지난해는 지방이 일떠서는 전환점이 마련된 의미깊은 해라고 말할수 있었다.

지난해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도, 시, 군들에서 지역특색에 부합되는 발전전략과 전망목표를 잘 세우고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전면시행 응대환 대장을 마련해주시었다.

하여 국가적으로 농촌을 적극 지원하고 시, 군들을 지역특색이 살아나게 균형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 나날 백두산아래 첫 등대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변모되고 여

리 시, 군들에 훌륭히 일떠선 사회주의농촌마을들과 행복의 별칭지들에서 환희와 격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울려져왔다.

어제 그뿐이라.

지난해 농업부문에 다수확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훌륭한 작황이 마련되었다.

재해성이상기후의 피해를 가지고 품종배치와 파종시기를 합리적으로 잘 조절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선진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인 각지의 농촌들이 과학농사활동으로 온 한해 부글부글 끓었다.

이 나날 풍요한 가을의 밀거름이 될 각오에 남먼저 새벽이슬을 맞으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내달린 수많은 농업근로자들이 다수확자들로, 전곡의 수많은 단위들이 다수확장장, 다수확작업반의 영예를 지니었다.

력사에 류례없는 난관속에서도 승리라고 긍지높이 자부할수 있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결실이다.

지난해 사회주의농촌만이 아닌 공화국 각지에서 울려 퍼진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갈 때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진리를 공화국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하기에 새해의 이 아침 농촌문제해결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진로를 명시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은 걸어갈 앞날을 신심과 락판에 넘쳐 그려보고있다.

더욱 백두산아래 첫 등대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변모되고 여

본사기자 림광훈

# 어머니 조국과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승리의 해로 빛나는 주제 110(2021)년의 자랑찬 페이지에는 자본주의이역에서 랄 흥색공화국을 휘날리며 조국을 옹위하고 조국을 사수하며 애국애국위업을 힘있게 다그쳐온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건일불발의 투쟁의 자욱도 력력히 새겨졌다.

주제강국의 공민된 존엄과 자부심을 안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어머니 조국과 운명의 퍼줄을 잇고 애국애국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세계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서의 영예를 빛나게 고수하고 열쳐왔다.

## 조국의 전진에 속속 따라사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존엄높은 자주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조국의 거세한 숨결은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필승의 원동력, 억척의 지지대, 투쟁의 활력소였다.

총련에서는 지난해에도 위대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사업을 자기 활동의 제일생명선, 필승불패의 원천으로 삼고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혁명사상을 동포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전개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대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한 주요기념일마다 중앙대회와 중앙강연회, 중앙사신전시회 등 뜻깊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여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모든 활동의 첫공정으로 삼고 공세적으로 벌리었다.

총련중앙위원회 제24기 제4차회의, 총련본부위원장의 총련본부위원장의 지방회의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전원회의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동포대중속에 신속정확히 전달침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대책들

이 강구되었다.

총련조직의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총련의 조직건설을 분회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실속있게 추진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전성기 3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를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로 정하고 일군들과 분회위원들을 총원기시켰으며 조직건설을 분회중심, 분회강화로 확고히 전환하였다.

새 전성기 애국애국모범분회의 영예를 지닌 분회를 비롯한 앞선 단위들이 새 전성기 애국애국모범창조운동 동포사회에 급속히 확산시키기 위한 투쟁을 견인하도록 하였다.

더 많은 분회들을 재건할수 있는 화를 세우고 일군들과 핵심들이 동포사회의 기층조직인 분회를 도와주고 강화하는 사업에 힘을 냈었다.

재일본조선선상공민협회(상공민협회)가 기층조직들을 총련의 두리에 굳게 묶는 성실도까지 위한 혁신운동에 앞장섰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직), 재일본조선학생동맹(유학동맹)과 재일본조선녀성동맹(녀성동맹)조직이 총련중앙위원회 제24기 제4차회의 결정을 어김없이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였다.

내성동맹에서도 조국의 목소리가 동포대중들속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과 새 전성기 애국애국모범창조운동들을 위한 분회별경쟁을 심화시켰으며 《분회장교류모임》, 《분회회원모임》 등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따라사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의 방법으로 분회강화운동을 고조시켰다.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는 《COVID-19》감염증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동포청년상공민들을 도와주어 그들이 조직을 강화하고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우리 민족포럼 2021》, 《청상회상생위원회》, 인터넷경쟁강연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애국운동들을 실속있게 벌려 지역에서도 동포들이 애국의 길을 걸을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내성동맹에서는 세계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육의 정보통신기술화

형식을 대사회, 통속화하여 각계층 동포들이 세계적인 양성전열병의 진과상황속에서도 생명안전을 지키고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어머니 조국을 대신하는 우리의 조직!

동포사회에서 울려나오는 이 부름은 조국의 자주정신과 기개, 뜨거운 정과 사랑으로 동포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한 총련조직이 받은 가장 보람찬 흥분한 평가이다.

원수님께서 조선대학교장립 65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전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지난해 4월 10일 입학식에 앞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대학교장립 65돐을 맞으며 보내주신 강령적인 축전을 전달하는 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주는 장소가 아니라 주체의 리념과 불변의 신념, 순결한 향수를 심어주는 곳, 동포애호가들과 학생들을 해외의 참된 애국충성, 애국인재를 키우는 자주적인 인간육성의 신성한 전당임을 새세대 청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었다.

창립 65돐에 즈음하여 조선대학교를 내외에 크게 선전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학술연구회 등이 진행되어 존엄높은 주체의 해외교포대학의 명성을 세계에 떨쳤다.

문예, 체육단체들을 발동하여 동포사회에 신심과 락판을 안겨주기 위한 민족문

반동세력들의 부당한 제재와 인권침해, 차별책동에 맞서 완강한 정의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재일동포들은 더욱 비렬하게 감행되는 일본당국의 민족교육차별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열거하였다.

유보무상화중앙대책위원회의 주도하에 100만명서명운동과 유보무상화에서 제외된 재일조선어린들에게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하는 요청활동이 일본전역에서 맹렬히 벌어졌다.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 포함시킬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하는 활동도 차별로 부당성과 일본의 비렬한 처사를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조선고급학교를 고등학교지위대상에 포함시킬것과 교육원보조금을 지불할것을 요구하는 대중운동도 힘차게 조직 전개하였다.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는 재일동포들의 완강한 투쟁은 일본에서 자행되는 비렬한 민족차별책동을 세계에 고발하고 일본당국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미중국의 시련과 도전속에서도 불굴의 신념과 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의 철저한 대변자, 견결한 옹호자, 친철한 봉사자로서 민주주의적진취성과 불리조건을 위하여 적극 헌신해온 총성의 애국대오의 투쟁은 주제조선의 크나큰 자랑으로 되고있다.

황금만능의 이역에서 누구나 쉽게 선택할수 없는 애국의 한걸음 곳곳이 걸으며 일신외의 부귀영화나 아니나 오로지 민족교육과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분분하고있는 이런 미더운 애국자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이 더욱 존엄높고 총련애국위업의 비풍은 굳건히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우리 민족포럼 2021》



김강신가족단 대체로운 순회공연활동 진행



조선대학교 제 63 회 졸업생들



일본당국의 민족교육차별책동을 반대하여 대중운동 전개